

7. <보기>의 예를 참고하여 ‘속’과 ‘안’에 대한 사전 뜻풀이를 만들고자 한다. <보기 1>의 예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ㄱ. 굴 {속/안}에는 짐승이 있다.
 ㄴ. 그 사람은 {속/*안}을 잘 털어 놓지를 았아.
 ㄷ. 사흘 {*속/안}에 그 일을 마쳐야 한다.
 ㄹ. 회사에서 일어난 일은 회사 {*속/안}에서 처리해라.
 ㅁ. 그 소년은 가난 {속/*안}에서도 웃음을 잃지 았았다.
 *표는 적절하지 았은 쓰임을 나타낸 것.

- ① ㄱ을 보니 ‘속’과 ‘안’은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곳이나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았네.
- ② ㄴ을 보니 ‘속’은 ‘품고 았는 마음이나 생각’의 의미로 쓰이지만, ‘안’은 ‘마음, 생각’의 의미로는 쓰이지 았는구나.
- ③ ㄷ을 보니 ‘안’은 시간에 대해서도 쓰여, ‘일정한 표준이나 한계를 넘지 았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았는군.
- ④ ㄹ을 보니 ‘안’은 ‘조직이나 나라 따위를 벗어나지 았은 영역’을 뜻하기도 하네.
- ⑤ ㅁ을 보니 ‘속’은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네.

8. <보기>의 대화에 쓰인 높임 표현 중 적절하지 았은 것을 묶은 것은?

<보기>

손님: 구두를 사러 았습시다만…….
 직원: 어떤 구두를 ㉠원하시나요?
 손님: 굽이 높지 았아 발이 편한 신발이요.
 직원: 네, 그럼 이 구두는 ㉡어떠신가요?
 손님: 편할까요?
 직원: 한 번 ㉢신어 보실게요.
 손님: 꼭 끼는데……. 조금 큰 구두가 ㉣있을까요?
 직원: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았습니다.
 손님: 좋아요. 얼마예요?
 직원: 네. ㉤37,000원이십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10] <보기>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선생님: 표정이 어둡네. ㉠무슨 걱정이라도 았는 거니?
 학생: 제 머리가 나쁜가 봐요.
 선생님: ㉡저런…….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 았은 모양이로구나.
 학생: 열심히 한다고 하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았아서요.
 선생님: 많이 속상하겠구나. ㉣하지만 피장부아장부(彼丈夫我丈夫)라는 말이 았지. ㉤예, 사람의 지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 훌륭히 될 수도 안 될 수도 았다는 말이야.
 학생: ㉥음, 꾸준히 노력을 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았는 말씀이지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9. 밑줄 친 ㉠ ‘무슨’에 대신하여 쓰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어떤 ② 아무 ③ 어느 ④ 다만 ⑤ 어찌

10. 밑줄 친 ㉡~㉣ 답화 표지의 쓰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았은 것은? [3점]

- ① ㉡는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로서, 대화를 우호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표지이다.
- ② ㉢는 가까운 미래의 대상에도 쓰일 수 았기는 하나, 여기서는 최근에 치른 중간고사를 가리키기 위하여 선택한 표지이다.
- ③ ㉣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았음을 나타내고 나서, 격려하는 말을 이끌기 위하여 선택한 표지이다.
- ④ ㉡는 말을 꺼내기가 어색하여 머뭇거림을 드러내기 위한 표지이다.
- ⑤ ㉣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수긍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표지이다.

11. <보기>의 조건에 맞게 쓴 것은?

<보기>

- 대구를 이루게 할 것.
- 비유적 표현이 들어갈 것.
- 완곡하게 주장할 것.

- ① 우리가 가까이할 양식, 배를 채울 빵? 머리에 쌓을 책!
- ② 어둡던 어제는 지나갔노라. 새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자!
- ③ 우는 아이 달래려고 재롱떠는 우리 누나. 곱기도 하구나!
- ④ 이슬 같은 인생에서 의미 았는 것을 찾아야 하지 았을까?
- ⑤ 활짝 웃는 맑은 하늘, 건강한 우리 후손. 환경을 보호합시다.

[12~13] <보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기상 측정이 시작된 이후 최대 강수량, 최대 폭설’, ‘사람 체온을 훌쩍 넘기는 이상 기온’. 우리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예측할 수 았는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한 측면에 았다.

이제까지 인류는 화석 연료를 지혜롭게 이용한 ㉡탓에 편리함과 풍족함을 누릴 수 았었다. 수억의 인구가 먹고살 수 았도록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킨 농약이나 비료를 비롯하여 건강을 지켜 준 의약품, ㉢프라스틱 제품 등 이루 헤아릴 수 았을 만큼의 많은 혜택을 인류에게 제공한 것도 화석 연료이다. ㉣게다가 화석 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심각한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래서 다음 몇 세기는 장기간의 화석 연료 사용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를 감당해 내야만 할 것 같다. 우리는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앞으로 닥칠 미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예측해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우선 현실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12. <보기>를 도입 부분으로 하여 한 편의 글을 쓰려고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았은 것은?

I. 서론 : <보기>의 내용
 II. 본론
 1.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다.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온실 효과

2. 화석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산업의 육성
 나.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화석 연료 사용 규제
 다.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III. 결론: 탄소 배출 억제를 통한 지구 생태계 보전

- ① II-1의 '가'는 II-1의 '다'와 합쳐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고친다.
 ② II-1에 '화석 연료 고갈로 인한 에너지 자원 부족'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③ II-2의 '다'는 논지 전개상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④ II-2에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자원 개발'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⑤ III의 결론을 '환경오염 예방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고친다.

13. <보기>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호응을 고려하여 '~ 측면이 있다.'로 고친다.
 ② ㉡은 긍정적 의미를 표현하는 점을 고려하여 '덕에'로 고친다.
 ③ ㉢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플라스틱'으로 고친다.
 ④ ㉣은 글의 통일성을 저해하므로 삭제한다.
 ⑤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그리고'로 고친다.

[14~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A]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호남의 가뭄 애기 조합 빛 애기
 약장수 기타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어디를 들어가 쟤다라도 벌일까
 주머니를 털어 색시집에라도 갈까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어느새 긴 여름 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 [B]
 달이 환한 마차길을 절뚝이는 파장

- 신경림, 「파장」 -

(나)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피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 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과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C]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뜨거린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다)
 벼는 서로 어우러져 [D]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E]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댄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문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이성부, 「벼」 -

1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민중들의 삶을 토대로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② (가)와 (다)는 화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④ (가)~(다)는 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가)~(다)는 특정한 사물을 중심 소재로 삼아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15. (가)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힘들어져 가는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형상화했군.
 ② 일상적 시어와 평이한 서술로 이야기하듯 노래하고 있군.
 ③ 농촌과 대립적인 곳으로 '서울'이라는 공간을 설정하였군.
 ④ 가난하고 소박한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군.
 ⑤ 장터에서의 흥겨운 모습과 인물들의 내면을 일치시키고 있군.

16.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인화의 방법으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으로 시적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의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여 시의 현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대상의 속성과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17. [A]~[E]에 담긴 시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8. ㉠~㉡ 중 <보기>의 바람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 김수영, 「풀」 -

- ① ㉠ ② ㉡ ③ ㉢ ④ ㉣ ⑤ ㉤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해 전 삼척에 갔을 때 죽서루를 보고 나서 새삼 유열(愉悅)에 잠긴 일이 있다. 마치 병풍처럼 둘러선 푸른 단애(斷崖) 위에 날아갈 듯 자리 잡고서 굽이굽이 맑은 강심에 그림자를 띄운 그 순박한 정자의 모습도 모습이러니와 이 누대(樓臺) 기둥들을 떠받치고 있는 ‘덤병주초’의 희한한 조화미에 내 마음이 흥겨웠던 것이다.

㉠생긴 그대로의 절벽, 바위 둔덕 위에 울명진 높고 낮은 자연 암석들을 적당히 의지해서 주초(柱礎)로 삼고 불가피한 곳에만 자연석을 옮겨 놓아 주초의 수를 채웠으므로 기둥 길이를 여기에 맞춰 길고 짧게 마름질한 것이 덩병주초였다. 따라서 이 죽서루의 대청 밑은 생긴 대로의 지형 위에 길고 짧은 기둥들과 크고 작은 자연 암반들로 이루어진 초석들의 양감이 마치 태초의 것인 양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건축에 나타난 이러한 덩병주초의 예는 이 죽서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덩병주초는 과거 한국인들의 자연애와 자연에 대한 깊은 외경 그리고 자연과 인위의 조화미에 대한 희한한 안목에서 우러난 멋진 조형 예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죽서루가 지나는 조형과 ‘점지(占地)’의 정신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큰 관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강산 만리의 호화한 자연 풍광 속 어디에 어떻게 이 죽서루 한 채를 멋지게 들어앉혀서 강산 풍광에 화룡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있었다. ㉡죽서루가 평평한 터를 찾아 조금만 뒤로 물러앉았어도 또는 분수없이 얼마만치라도 옆으로 비켜 세워졌더라도 오늘의 죽서루가 보여주는 쾌적한 시각에는 차질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자연 풍광 속에 집 한 채 멋지게 들여세우는 뛰어난 천분을 지녔다. 조그만 정자 한 채는 물론 큰 누대나 주택에 이르기까지 뒷산의 높이와 앞뒷벌의 넓이,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지붕의 높이와 크기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들의 형안은 상쾌하다고 할 만큼 자동적으로 이것을

잘 가능하는 재질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건축은 먼 곳에서 바라볼 때 한층 눈맛이 나는 특장(特長)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점지의 묘’를 유감없이 발휘한 셈이다.

대동강변에 자리 잡은 부벽루나 을밀대, 밀양의 영남루나 진주 남강의 축석루 등도 인공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자연의 풍광을 도운 좋은 예들이다. 만약 ㉣불국사가 좀 더 높은 곳에 자리 잡았거나 더 얇은 곳에 세워졌더라면 지금의 아늑하고도 쾌적한 시계(視界)는 달라졌을 것이 분명하다.

다른 하나의 관점은 자연에 관한 외경의 표징이다.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국인은 지맥을 매우 존중하는 민족이다. 마치 인간에 있어서 혈맥이 그 생명을 가능하듯이 작게는 향토, 크게는 국가의 운명이 지맥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도 경주시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진입로를 뒀느라고 경주 남산 끝머리 얇은 둔덕 하나를 자르고 나간 일이 있다. 그때 현지 인사들이 이것은 지맥이 끊긴 것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물의가 빚어진 일이 있었다. 이것은 작은 예의 하나이지만 있는 대로의 자연을 인위적으로 크게 변형하는 것을 극히 기피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사람은 한 번 나서 100년이면 죽어 가고 대를 이어 새 사람이 태어나지만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영겁에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한국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뼈저리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뒷동산의 잘생긴 바위 한 덩어리, 등 넘어가는 오솔길 한 갈래, 축동(築洞)의 노목 한 그루에도 정령과 생명이 스며 있다는 생각, 즉 자연도 인간 못지않은 존귀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 민족은 믿고 있었다. 이것은 충분히 수궁이 가는 사고이다. 어떤 의미로는 현대의 뛰어난 경륜을 지닌 지성보다도 한결음 앞선, 자연 보존의 존귀한 가치관과 신념을 지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한국 건축은 자연에 대한 깊은 외경을 보여 주었다.
- ② 한국 건축은 자연과 인위의 조화미를 아주 중요시했다.
- ③ 한국 건축은 자연을 변형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창조해 냈다.
- ④ 한국 건축은 지맥을 존중하는 민족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 ⑤ 한국 건축은 먼 곳에서 바라볼 때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20.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제재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글쓴이의 경험을 화두로 제재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제재의 특성을 구성 요소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제재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재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21. ㉠~㉤ 중 화룡점정의 미학적 정신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안에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소반이 네 발로 하늘
 께 축수하고 솔이 목을 매어 달렸고 조리가 턱거리를 하고,
 밥을 지어 먹으려면 책력을 보아 갑자(甲子) 일이면 한 때
 씹고, 생쥐가 쌀알을 얻으려고 밤낮 보람을 다니다가 다
 리에 가래푼이 서서 파종(破腫)하고 앓는 소리 동네 사람이
 잠을 못 자니 어찌 아니 서러울쏜가.

“아가, 아가 우지 마라. 아무리 젓 달란들 무엇 먹고 젓이
 나며, 아무리 밥 달란들 어디서 밥이 나랴.”

달랠 제, 흥부 마음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 옥걸이라. 성
 덕을 본받고 악인을 싫어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
 심하니 마음이 이러하매 부귀를 바랄쏘나.

흥부 아내 하는 말이,

“애고, 여복소. 부질없는 청렴 밥소. 안자(顔子) 단표
 (簞瓢) 주린 염치 삼십 조사(早死)하였고, 백이숙제(伯
 夷叔齊) 주린 염치 청루 소년 웃었으니,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아주버니네 집에 가
 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옵소.”

흥부가 하는 말이,

“나 싫쇠.”

“왜 싫은고?”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치웁나니 그 배를 뉘 아들놈이 맞는단 말이오.”

“애고, 동냥은 못 준들 쪽박조차 깨칠쏜가.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나 본다고 건너가 봅소.”

흥부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제, 치장을 불작시면 편
 자 없는 헌 망건에 박 쪼가리 관자 달고 물레 줄로 당줄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여매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헌 술떠
 를 흥복통을 눌러 띠고 떨어진 헌 고의에 청울치로 대님 매고
 헌 짚신 감발하고 세 살 부채 손에 쥐고 서 흙 들이 오방 자루
 쫑무니에 비스듬히 차고 바람 맞은 병인같이 잘 쏘는 사수같이
 어숙비숙 건너 다다라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 노적 뒤 노적 멍에 노적 다물다물 쌓였으니 흥부 마음
 즐거우나 놀부 심사 무거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
 하니, 흥부가 하릴없어 뜰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뉘고?”

“내가 흥부요.”

“흥부가 뉘 아들인고?”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오. 비나이다, 형님 전에 비나이
 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 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
 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값으며 일을
 한들 공할쏜가.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오.”
 애걸하니, 놀부 놈의 거동 보소. 성낸 눈을 부릅뜨고 불을
 울려 호령하되,

“너도 염치없다. 내 말 들어 보아라. 천불생무록지인(天
 不生無祿之人)이요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라.

네 복을 누구를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뇨? 쌀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혈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혈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피목 궤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며, 가로 되나 주자한들 복고 왕소금 소독(小櫃)에
 가득 넣은 것을 독을 열며, 의복이나 주자한들 집안이 고루
 벗었거든 너를 어찌 주며, 찬밥이나 주자한들 새끼 낳은 검
 정 암개 부엌에 누웠거든 너 주자고 개를 굶기며, 지게미나
 주자한들 굶은 방 우리 안에 새끼 낳은 돼지가 누웠으니
 너 주자고 돼지를 굶기며, 껌이나 주자한들 큰 농우가 네
 필이니 너 주자고 소를 굶기랴. 염치없다, 흥부 놈아.”

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 뒤통지를 꽉 잡으며 몽둥이를 지끈
 꺾어 손자승의 매질하듯 원 화상의 범고 치듯 아주 광광 두
 드리니,

흥부가 울며 이른 말이,

“애고 형님, 이것이 웬일이오. 방약무인 도척이도 이에서
 성현이요, 무지 불측 관손이도 이에서 군자로다. 우리 형
 제 어찌하여 이다지 극악한고?”

탄식하고 돌아오니

- 작자 미상, 「흥부전」 -

22.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본성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에 고사나 한자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
- ③ 동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해학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유사한 구조의 어구가 반복되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 ⑤ 외모나 행동을 희화화하여 인물의 성격을 풍자하고 있다.

23. [A]와 <보기>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해서 그의 아내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아내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 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는 밑
 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아내는 왈칵 성을 내서 소리
 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왜 도둑질이라도 못하시오?”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 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
 는데 이제 칠 년인 걸…….” 하고 획 문 밖으로 나가 버렸다.

- ① 허생에 비해 흥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있다.
- ② 흥부와 허생은 둘 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③ 허생 아내에 비해 흥부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
- ④ 흥부 아내에 비해 허생 아내는 남편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⑤ 흥부 아내와 허생 아내는 둘 다 자식들이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24. [B]에 나타난 놀부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흥부는 소, 돼지 등 가축보다도 못하다.
- ② 사람은 다 제게 주어진 복을 타고 났다.
- ③ 흥부는 자기 가족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 ④ 자기에게 뭔가를 빌리러 온 흥부는 염치없다.
- ⑤ 집안사람들과 흥부는 모두 굶주려도 상관없다.

25. ㉠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말은?

- ① 십시일반(十匙一飯) ② 삼순구식(三旬九食)
- ③ 남부여대(男負女戴) ④ 동병상련(同病相憐)
- ⑤ 풍찬노숙(風餐露宿)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다.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살아 있는 인간의 뇌 활동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바로 뇌 영상 기술이다. 1970년대에 개발된 CT를 시초로 하여 PET, MRI, fMRI 등 다양한 뇌 영상 기술이 연달아 등장하였다.

㉠CT(컴퓨터 단층 촬영)는 인체 내부 장기마다 X선을 투과하는 양이 다르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인체 내부 단면을 촬영하는 장치이다. CT는 X선 발생 장치가 설치된 도넛형의 기계가 돌아가면서 X-ray를 여러 번 찍은 후 그 영상들을 조합하여 컴퓨터상에 인체의 횡단면에 해당하는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낸다. 15초 정도면 영상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의 진단을 위해 주로 활용한다.

또 X선을 통해 혈액 등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 뇌졸중 등의 진단에는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볼 수 없다.

CT 이후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해 인체의 생화학적 상태를 3차원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PET(양전자 단층 촬영술)가 등장하였다. 방사성 포도당은 특수 카메라나 스캐너로 볼 수 있는 양전자를 방사하기 때문에 소량의 방사성 포도당을 환자의 몸에 주입한 후 뇌의 뉴런들이 포도당을 이용하는 상황을 PET로 찍는다. 이 기술은 우리 뇌가 포도당과 산소를 원료로 이용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뇌 활동이 활발한 곳은 붉은색으로, 별로 활발하지 않은 곳은 파란색으로 나타난다. PET는 신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뇌종양, 뇌신경계 질환 등의 조기 진단에 활용되고, 암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방사성 포도당이 많이 모인 곳을 찾음으로써 암의 위치를 발견하는 데도 쓰인다.

CT와 PET가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이라는 점과 달리 ㉢MRI(자기공명 영상 장치)는 고주파에 의해 몸속의 특정 원소인 수소 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을 구현하는 장치이다. MRI는 엄청난 자력을 이용하여 환자의 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고, 전자파를 환자에게 방사한다. 작은 자석처럼 활동하는 몸의 원자들이 MRI 전자파에 부딪혀 자체의 파동을 생성하면 MRI는 그 파동을 측정하고 컴퓨터를 통해 이를 사진으로 변환한다. 이 장치는 좁은 터널 속에 들어가야 하므로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지만 해상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뇌신경계 질환을 진단하기에 효율적이다. MRI는 CT와 달리 횡단면, 종단면, 측면, 사면 등 3차원 영상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기장을 사용하는 기술이므로 심장 박동기나 치아 보철물 등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인공 장치가 몸에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가 없다.

㉣기능성 MRI인 fMRI는 뇌가 활동이 많은 부위일수록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활용하여 뇌 혈류 속의 산소 수준을 반복 측정하여 뇌의 기능적 활성화 부위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뇌 영상을 구현한다. 환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제시한 후 인지 과제를 수행할 때의 뇌 활성화와 그렇지 않을 때의 뇌 활성을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행위나 의식과 연관된 뇌 부위를 찾아 이를 뇌 단면의 해부 구조를 나타내는 영상 위에 색채로 표시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급격히 발전해 온 뇌 영상 기술은 인간에게 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 그간 속수무책이었던 질병의 치료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또 인지과학이나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최근의 뇌 영상 기술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법학 분야에서는 뇌 영상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보다 훨씬 정확한 결과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2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뇌 영상 기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 ㉡ 뇌 영상 기술은 CT를 시초로 하여 여러 종류의 기술이 등장하였다.
- ㉢ 뇌 영상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뇌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 ㉣ 뇌 영상 기술은 뇌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X선이나 전자파 등을 사용한다.
- ㉤ 뇌 영상 기술은 인지과학이나 심리학 영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7. 밑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상황에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의식이 없는 이 환자에게 응급조치가 취해졌고 이틀 후 의식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의식이 돌아온 이 환자는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였다. 읽는 것은 가능하였지만 말을 하지는 못했다.

- ㉠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먼저 CT를 찍었겠군.
- ㉡ 해상도가 뛰어난 영상을 얻으려면 MRI를 촬영하여야겠군.
- ㉢ CT 영상으로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군.
- ㉣ fMRI를 활용하면 뇌의 어느 부위가 문제인지를 진단할 수 있겠군.
- ㉤ 환자가 치아 보철물을 한 경우라면 PET를 촬영할 가능성이 있겠군.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과 달리 ㉠, ㉢은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이다.
- ㉡ ㉡과 ㉢은 뇌에 대한 3차원적 영상을 제공한다.
- ㉢ ㉠보다 ㉡, ㉢은 뇌신경질환 진단에 효율적이다.
- ㉣ ㉡과 ㉢은 뇌의 활동 부위를 색채로 표시해 주는 방식이다.
- ㉤ ㉠과 ㉢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여야 영상을 얻을 수 있다.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삼월(三月) 나머 개(開)한 아으
만춘(滿春) 들윗고지여
늑미 브롤 즈슬
디너 나삿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사월(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곳고리세여

므슴다 녹사(錄事)니문

㉠ 넷 나를 닛고신더

아으 동동(動動)다리

오월(五月) 오일(五日)에 아으

수릿날 아춤 약(藥)은

즈른 힐 장존(長存)흐살

약(藥)이라 받좁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유월(六月)스 보로매 아으

㉡ 별해 브론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물

적곰 좃니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칠월(七月)스 보로매 아으

백중(百種) 배(排)흐야 두고

㉢ 니물 흐 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 작자 미상, 「동동(動動)」 -

(나)

강호(江湖)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흐 강파(江波)는 보느니니 브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강호(江湖)에 ㅁ을이 드니 고기마다 솔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시러 흘리 띄여 더더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다)

꽃 디고 새넙 나니 녹음(綠陰)이 질렀는디

㉣ 나위(羅幃) 적막(寂寞)흐고 슈막(繡幕)이 뷔여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갓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원앙금(鴛鴦錦)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어

금자희 건화이서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쿠니와 제도(制度)도 ㅁ줄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더 바라보니

㉤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호도 머흘시고

천리(千里) 만리(萬里) 길흘 뒤라서 츠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2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배경에 따른 계절감이 드러나 있다.
- ②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마음이 그려져 있다.
- ③ 매달의 명절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임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자연에 빗대 표현하고 있다.
- ⑤ 폐쇄된 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갑갑함을 토로하고 있다.

3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후렴구에 의해 연이 구분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 ② (나)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각 연의 주제상 통일성을 피하였다.
- ③ (다)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인물의 행동과 정서를 통해 표현하였다.
- ④ (가)와 (나)는 여러 연이 모여 한 작품을 이루는 구성 방식으로 되어 있다.
- ⑤ (나)와 (다)는 한 행의 음보수와 한 작품의 행수 구성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3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초당에 일이 업다'를 통해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소정에 그물 시러'에서 화자의 생활 전반이 소박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흘리 띄여 더더 두고'에는 물욕이 없는 화자의 심정이 담겨 있다.
- ④ '소일히움'에는 소임을 수행하려는 화자의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⑤ '강호'에 있는 '이 몸'을 통해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화자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32. (다)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핏버들 갈헛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는 창(窓) 맞기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량 -

- ① 화자와 임 사이에 놓인 간격을 인식하는 어떤 계기를 얻는다.
- ② 화자와 임이 서로 그리워하는 내용의 사연을 주고받는다.
- ③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분신과 같은 어떤 사물을 보낸다.
- ④ 화자와 임이 이별의 상황을 타개하려고 함께 노력한다.
- ⑤ 화자가 임에게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편지를 전한다.

33. ㉠~㉤ 중 화자의 소망을 표현한 구절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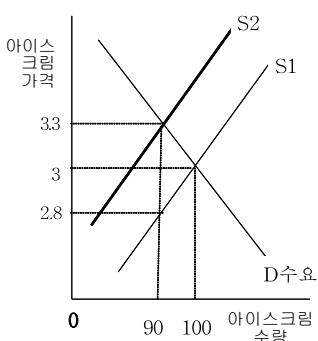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가 어떤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을 누가 지는가? 그 재화를 구입하는 구입자인가, 그 재화를 판매하는 공급자인가? 구입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면 각각의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러한 질문들을 경제학자들은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단순한 수요 공급 모형은 이용하여 조세의 귀착에 관한 놀라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개당 3달러 하는 아이스크림에 정부가 0.5달러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를 보자. 세금이 구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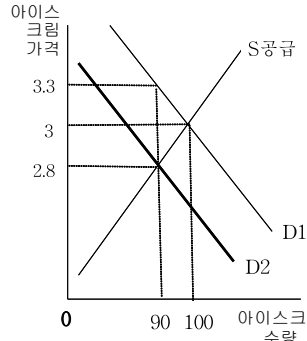
변화가 없다. 반면 공급자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가격은 0.5달러만큼 준 2.5달러로 하락한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시장가격이 이 금액만큼 하락한 것으로 보고 공급량을 결정할 것이다. 즉, 공급자들이 세금 부과 이전과 동일한 수량의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도록 하려면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개당 0.5달러만큼 가격이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그림1]에 표시된 것처럼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 곡선이 S1에서 S2로 이동한다. 공급 곡선의 이동 결과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면서 아이스크림의 균형 가격은 개당 3달러에서 3.3달러로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3.3달러로 상승하지만 공급자는 세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은 2.8달러가 된다. 세금이 공급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구입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림1]



<공급자에 대한 과세>

[그림2]



<구입자에 대한 과세>

이번에는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보자.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아이스크림의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구입자들은 이제 세금도 납부해야 하므로 각 가격 수준에서 구입자들의 희망 구입량은 줄어들어 수요 곡선은 [그림2]처럼 D1에서 D2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균형 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은 개당 3달러에서 2.8달러로 하락하고, 구입자들이 내는 가격은 세금을 포함하여 3.3달러로 상승한다. 형식적으로는 세금이 구입자에게 부과되지만 이 경우에도 구입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 재화의 구입자와 공급자들이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때 세금 부담의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그것은 수요와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므로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작다. 반면에 구입자들이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구입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 거꾸로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매우 탄력적인 시장인 경우에는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지만,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공급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 본질적으로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구입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다른 재화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고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공급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재화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될 때,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쪽일수록 그 재화의 소비를 포기하기 어려우므로 더 큰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4.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귀착과 탄력성
- ② 세금 부과의 바람직한 방향
- ③ 세금 부과를 결정하는 요인
- ④ 조세 부과에 대한 대응 전략
- ⑤ 탄력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35. 밑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국가는 요트와 같은 사치품은 부자들만 살 수 있으므로 이들 품목에 사치세를 부과할 정책을 계획 중이다. 그런데 요트에 대한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다. 부자들은 요트를 사는 대신에 자가용 비행기나 크루즈 여행 등에 그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요트 생산자는 다른 재화의 생산 공장으로 쉽게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요트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 ① 세금이 부과되면 부자들의 요트 구입량은 감소하겠군.
- ② 수요와 공급 중 보다 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겠군.
- ③ 사치세를 부과하면 요트 공급자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겠군.
- ④ 사치세를 통해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겠군.
- ⑤ 요트 생산자보다 부자들은 요트를 대신할 대체재를 상대적으로 찾기 쉽겠군.

36.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 거래량은 줄어든다.
- ② 구입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
- ③ 세금으로 인해 재화 거래의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
- ④ 세금을 구입자에게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 ⑤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37. ㉡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가 부담으로 여겨졌을 테지요.
- ② 수입품에 세금이 부담되었다.
- ③ 아이한테 너무 부담을 준다.
- ④ 위장에 부담을 준다.
- ⑤ 위험 부담이 크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절제한 사람은 어디에나 주인을 모시고 다니는 노예이다. 육체의, 욕망의, 습관의, 아니면 자신의 장점 혹은 약점의 노예이다. 에피쿠로스는 절제와 자제라는 용어를 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과는 달리 ‘엄매이지 않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점에서는 그가 옳은 듯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폐려야 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우리는 엄매이지 않음을 하나의 선으로 본다. 결코 적은 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 가지지 못했을 때 적은 것을 가지고도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A]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최소의 것으로 최대의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그 최소의 것을 가지고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극빈의 나라가 아니고는 물과 빵이 모자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한 나라에서도 금과 사치품은 부족하다. 그렇다고 거기에 불만을 느낀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욕망이 ㉠끝을 모른다면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에피쿠로스는 오히려 약간의 치즈와 마른 생선을 가지고도 향연을 베풀 사람이었다. 배고플 때 먹는 음식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을까. 배고프고 난 다음의 포만감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자연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보다 더한 자유가 있을까.

절제는 얼마이지 앓음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며, 얼마이지 앓음은 행복에 이르기 위한 길이다. 절제한다는 것은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힘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적은 것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고 만족이다.

그러므로 절제는, 신중처럼 그리고 모든 다른 미덕들처럼, ㉡누릴 줄 아는 기술과 관련된다. 절제란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욕망의 작업이며 살아 있는 사람의 작업이다. 절제는 한계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대신 오히려 한계를 존중한다. 절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푸코가 '자신에 대한 염려'라고 부른 것을 우선시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 도덕이라기보다 개인적 윤리이며 의무라기보다는 양식(良識)이다.

절제도 일종의 신중이다. 다만 쾌락에만 적용되는 신중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누리고 볼 일이다. 다만 대상의 수만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의식의 강도를 높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토록 많은 여자가 필요했던 돈 후안은 불쌍하다. 많이 마셔야만 하는 알코올 중독자는 불쌍하다. 많이 먹어야만 하는 폭식증 환자는 불쌍하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쾌락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때에는 얼마든지 취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목마름을 가시게 하는 것보다 간단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극도의 기근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배속과 생리를 만족시키는 일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자연적 욕망은 아주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보다 행복한 제한을 받는 것이 있을까.

탐욕스러운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다. 우리를 결핍에 시달리게 하고 불만과 불행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끝없는 욕망이라는 상상의 병이다. 우리는 배속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처구니없게도 배속이 작다고 나무란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에 풋말을 세우듯이 욕망에 풋말을 세운다.' 말하자면 그것은 육체의 풋말이며 절제의 풋말이다. 그러나 무절제한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건너가려고 한다. 배고프지 않으면 토해 내고라도 먹을 것이며 목마르지 않으면 짹짹한 땅콩을 먹거나 독한 술을 마셔서라도 갈증을 생산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야말로 쾌락으로부터 자유롭기는커녕 바로 그 쾌락 때문에 쾌락의 노예인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포만 속에서 더한 결핍을 느낄 것이며 마침내는 결핍의 노예가 될 것이다.

3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는 목마름, 배고픔, 생리 등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 ② 어떻게든 욕망을 생산하는 사람은 욕망에 풋말을 세운다.
- ③ 아무리 풍요한 나라도 사치품은 부족하기 마련이다.
- ④ 적은 것에 만족하여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⑤ 절제는 자신에게 얼마이지 앓는 것이다.

39.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설명하였다.
- ② 서로 대비되는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 ③ 유사한 개념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
- ④ 개념의 하위 범주를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 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40. <보기>의 밑줄 친 부분 중 [A]의 태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을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흐건마는
 너 생애(生涯) 이리호디 설은 뜻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네기로드
 평생(平生) 흐 뜻이 온포(溫飽)애는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흐리 누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티로 살렸노라

- 박인로, 「누항사」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1. ㉠~㉤을 다른 말로 바꿔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 |
| ① | 밀접한 | 무수하다면 | 향유할 |
| ② | 불가결한 | 무수하다면 | 완상할 |
| ③ | 밀접한 | 무한하다면 | 향유할 |
| ④ | 불가결한 | 무한하다면 | 완상할 |
| ⑤ | 밀접한 | 무한하다면 | 완상할 |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거지들이 날이 저물었다고 독 가마 부근으로 모여들었다. 송영감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속을 죄고 있을 때였다. ㉠가마 속에서 갑자기 뚜왕! 뚜왕! 하고 독 튀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송영감은 처음에 벌떡 반쯤 일어나다가 도로 주저앉으며 이상스레 빛나는 눈을 한곳에 머물린 채 귀를 기울였다. 송 영감은 가마에 넣은 독의 위치로, 지금 것은 자기가 지은 독, 지금 것도 자기가 지은 독, 하고 있었다. 이렇게 튀는 것은 거의 송 영감의 것뿐이었다. 그리고 송 영감은 또 그 튀는 소리로 해서 그것이 자기가 앓다가 일어나 처음에 지은 몇 개의 독만이 튀지 않고 남은 것을 알며, 뺨손이의 거치적거린다고 거지들을 꾸짖는 소리를 멀리 들으면서 어둠 속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송 영감은 애를 시켜 앵두나뭇집 할머니를 오게 했다.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오자 송 영감은 애더러 놀러 나가라고 하며 유심히 애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마치 애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A]

(나) 앵두나뭇집 할머니와 단둘이 되자 송 영감은 눈을 감으며, 요전에 말하던 자리에 아직 애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앵두나뭇집 할머니는 된다고 했다. 얼마나 먼 곳이야고 했다. 여기서 한 이삼십 리 잘 된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낼 수 있느냐고 했다. 당장이라도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앵두나뭇집 할머니는 치마 속에서 지전 몇 장을 꺼내어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송 영감의 손에 쥐어 주며, 아무 때나 애를 데려오게 되면 주라고 해서 맡아 두었던 것이라고 했다.

(다) 송 영감은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눈물일랑 흘리지 않으리라 했다.

그러나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 저렇게 너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을 때, 송 영감은 절로 눈물이 흘러내림을 어찌할 수 없었다. 앵두나뭇집 할머니는 억해 오는 목소리를 겨우 참고, 저것 보라고 벌써 눈에서 썩은 물이 나온다고 하고는, 그러지 않아도 앵두나뭇집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더 아버지에게 가까이 갈 생각을 않는 애의 손을 끌고 그곳을 나왔다.

그냥 감은 송 영감의 눈에서 다시 썩은 물 같은, 그러나 뜨거운 새 눈물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러는데 어디선가 애의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눈을 떴다. 아무도 있을 리 없었다. 지어 놓은 독이라도 한 개 있었으면 싶었다. 순간 뚝딱 속 전체만 한 공허가 송 영감의 파리한 가슴을 억눌렀다. 온몸이 오므라들고 차음을 송 영감은 느꼈다.

(라) 그러는 송 영감의 눈앞에 독 가마가 떠올랐다. 그러자 송 영감은 그리로 가리라는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거기에만 가면 몸이 녹여지리라. 송 영감은 기는 걸음으로 뚝딱을 나섰다.

거지들이 초입에 누워 있다가 지금 기어들어 오는 게 누구이라는 것도 알려 하지 않고, 구무럭거리 자리를 내주었다. 송 영감은 한옆에 몸을 쓰러뜨렸다. 우선 몸이 녹는 듯해 좋았다.

(마) 그러나 송 영감은 다시 일어나 가마 안쪽으로 기기 시작했다. 무언가 지금의 온기로써는 부족이라도 한 듯이. 곧 예사 사람으로는 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데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송 영감은 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냥 덮어놓고 기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이 발산하는 듯 어둑한 속에서도 이상스레 빛나는 송 영감의 눈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열어젖힌 걸창으로 새어 들어오는 늦가을 맑은 햇빛 속에서 송 영감은 기던 걸음을 멈추었다. 자기가 찾던 것이 예 있다는 듯이. 거기에는 터져 나간 송 영감 자신의 독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송 영감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단정히, 아주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이 터져 나간 자기의 독 대신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

4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면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 없이 설명적 진술과 서사적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 ③ 서술자의 변화를 통해 사건의 입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켜 외적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
- ⑤ 시간의 변화를 액자식 구성으로 보여 주고 있다.

43. ㉠의 상징적 의미를 유추하여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앵두나뭇집 할머니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담겨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난다.
- ④ 전통을 지켜 온 장인으로서 존재 의미가 상실되어 감을 나타낸다.
- ⑤ 독 가마 부근으로 모여 드는 거지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담고 있다.

44. (가)~(마)에서 [A]에 나타난 주인공의 심리가 가장 극적으로 서술된 장면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5. (나), (다)를 <보기>와 같이 각색했을 때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S# 86. 뚝딱 안(저녁)

죽은 듯 눈을 감고 누운 송 영감. 그의 앞에 방물장수가 서 있다. 송 영감 눈이 뜨인다.

송 영감 : (한참 동안 천장을 보다가) 아주머니! 우리 돌일 부탁하겠수…….

방물장수 : (반가워) 잘 생각하셨죠. 아, 그 덕이야!

송 영감 : 어서 애나 불러다 주시오…….

방물장수 : (끄덕이며) 네, 그러지요……. (뒤돌아서려다가) 애들이라 영감님이 죽었다고 해야 할 거요…….

송 영감 : …… (묵묵부답)

방물장수 : 그러니까 죽은 척하고 눈을 꼭 감고 계슈. (안됐다는 듯) 아이구! 쫓쫓!

혀를 차며 나간다.

— 중략 —

S# 88. 뚝딱 안

송 영감, 애타게 밖을 보다 돌이가 나타나자 얼른 눈을 감는다. 돌이, 방물장수 따라 가까이 온다. 그냥 굳게 눈을 감은 채 누운 송 영감.

돌이 다가와 앉아 송 영감을 흔들며 깨우려 한다.

방물장수 : 돌아! 자, 네 아버지 얼굴을 잘 봐 뒤야 한다! 네 아버지 죽었다!

움찔하고 보는 돌이. 이때였다. 송 영감의 꼭 감겨진 눈엔 눈물. 그 가득히 고인 눈물이 한 줄기 강물처럼 흘러내린다.

- ①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방물장수로 역할이 바뀌었군.
- ② 돌이가 송 영감을 흔들며 깨우려는 장면이 추가되어 있군.
- ③ 송 영감이 아이 우는 소리를 들은 듯한 대목이 생략되어 있군.
- ④ 앵두나뭇집 할머니와 방물장수 모두 송 영감에게 돈을 건네고 있군.
- ⑤ 방물장수가 송 영감에게 죽은 척하고 있으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추가되어 있군.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